

CBS가 만든  성경 채널
알림바이블 대본집

Ep.085

시험 받으신 예수님

(마태복음 4:1~11, 마가복음 1:12~13,
요한복음 1:35~51)



홀로 어디론가 길을 떠나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서는 어디를 가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서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기도하러
가신 거였어요.

황량한 모래벌판이 드넓게 펼쳐진 광야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이글이글 타오르고
밤에는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그곳에
예수님께서서는 무려 40일 동안이나 머물며
기도를 하셨어요.

그것도,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말이에요!

그렇게 40일이 지나고.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서는
이제야 배고픔을 느끼셨어요.
하지만 광야 한복판에 먹을 음식이
있을 리가 없었죠.
그러자 이 틈을 타서 마귀가
예수님의 믿음을 시험해 보기로 했어요.

**“이보시오, 예수!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까짓 배고픔이 무슨 문제겠소?
여기 광야에 널려 있는 돌들도 음식으로
만들 수 있을 텐데 말이오!
그러니 이 앞에 있는 돌에게 명령을 내려서
맛있는 빵으로 바뀌어 보시오! 퐁퐁퐁.”**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능력은 고작 빵 한 덩이를
얻기 위해 써야 할 능력이 아니었어요.

그것보다 훨씬 크나큰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사용돼야 할 능력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알겠느냐?”**

예수님께서 시험에 넘어가지 않자 마귀는 약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산골짜기에 있는
한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리고 갔죠.
성전 꼭대기는 너무나도 높아서 그곳에서 골짜기 바닥을
바라보면 모든 게 개미처럼 작게 보였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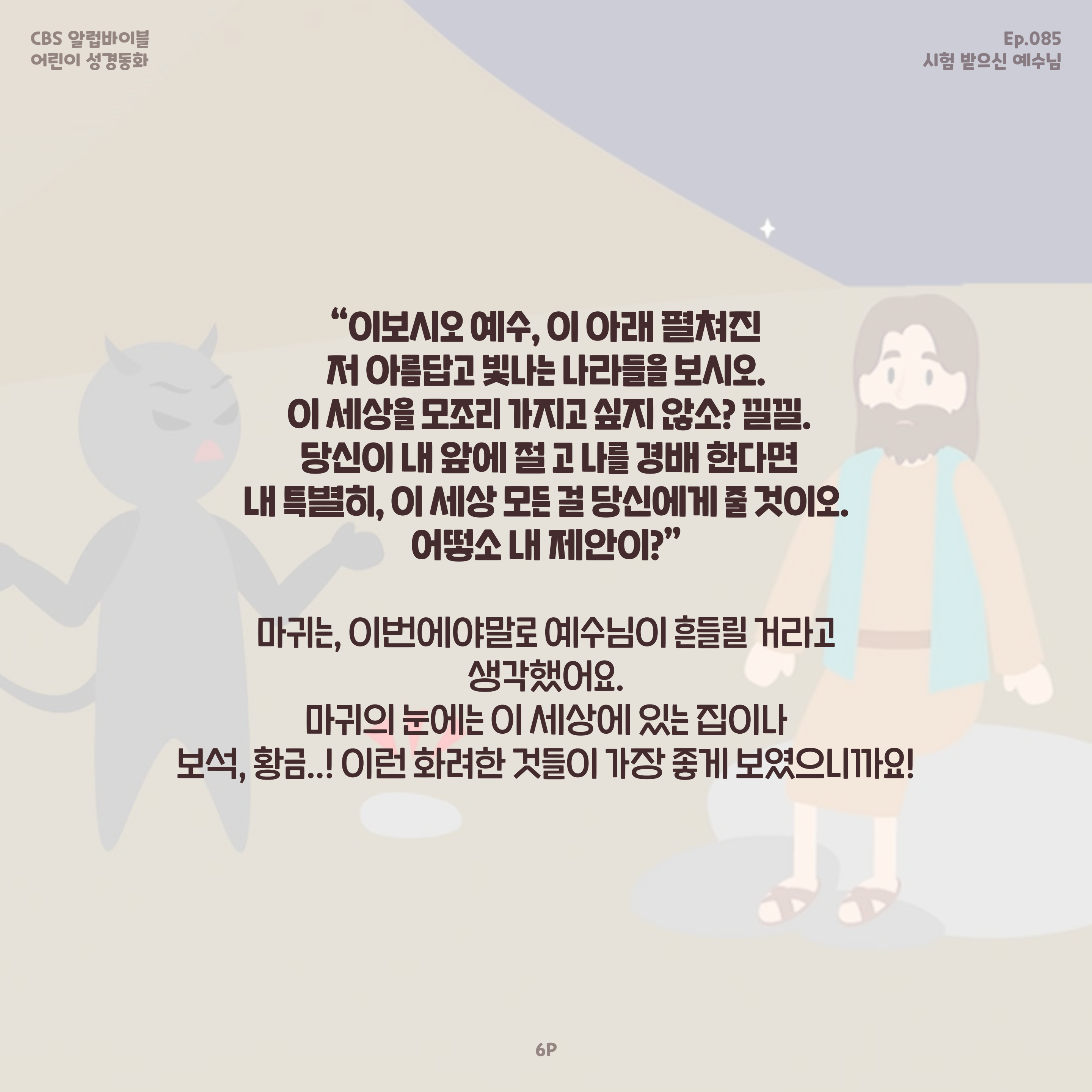
**“그렇게 피해 가지 말고 능력을 보여주시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 당신을 잡아주지 않겠소? 필필필.”**

하지만 마귀의 유혹에도
예수님께서서는 침착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성경에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단다.”

마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조급해진 마귀는, 이번엔 예수님을
아주 아주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곳에서는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내려다보였죠.



**“이보시오 예수, 이 아래 펼쳐진
저 아름답고 빛나는 나라들을 보시오.
이 세상을 모조리 가지고 싶지 않소? 낄낄.
당신이 내 앞에 절고 나를 경배 한다면
내 특별히, 이 세상 모든 걸 당신에게 줄 것이요.
어떻소 내 제안이?”**

**마귀는, 이번에야말로 예수님이 흔들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마귀의 눈에는 이 세상에 있는 집이나
보석, 황금..! 이런 화려한 것들이 가장 좋게 보였으니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이번엔 오히려 마귀에게 꾸중을 내리셨습니다!

“사탄아, 썩 물러가려라!
성경말씀에, <오직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겨라.> 이리 기록되어 있는 걸 모르느냐!”

어떠한 유혹에도 반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는 예수님을 보면서
마귀는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느꼈어요.

**“에잉... 이게 웬 망신이야...
마귀 체면이 말이 아니구만!”**

**그렇게 마귀는 예수님에게서 떠나가고
그 때 천사들이 대신 나타나 예수님을 받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광야를 떠나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 마을’이란 곳으로 향하셨습니다.
마침 베다니 마을에는 세례 요한이 머물고 있었는데
요한은 자신의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었죠!**

**“얘들아, 저기를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 계신다!”**

**“예? 하나님의 어린 양이면 하나님의
아드님이 저 분이란 말씀입니까?
이보게, 이럴 때가 아니야 어서 저 분을 쫓아가보세!”**

두 사람은 험레벌떡 예수님을 찾아가 말을 걸었고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 때 요한의 두 제자 중 한 사람은 ‘안드레’였는데
안드레는 근처 바닷가 마을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어요.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는 잔뜩 흥분해서
형인 ‘시몬’을 찾아갔죠.

“형님! 제가.. 구세주 예수님을 만났어요..!
메시아를 찾았다구요!”

“뭐어~?”

역시나 어부였던 형을 데리고 안드레는
재빨리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예수님, 제 친형인 ‘시몬’을 데리고 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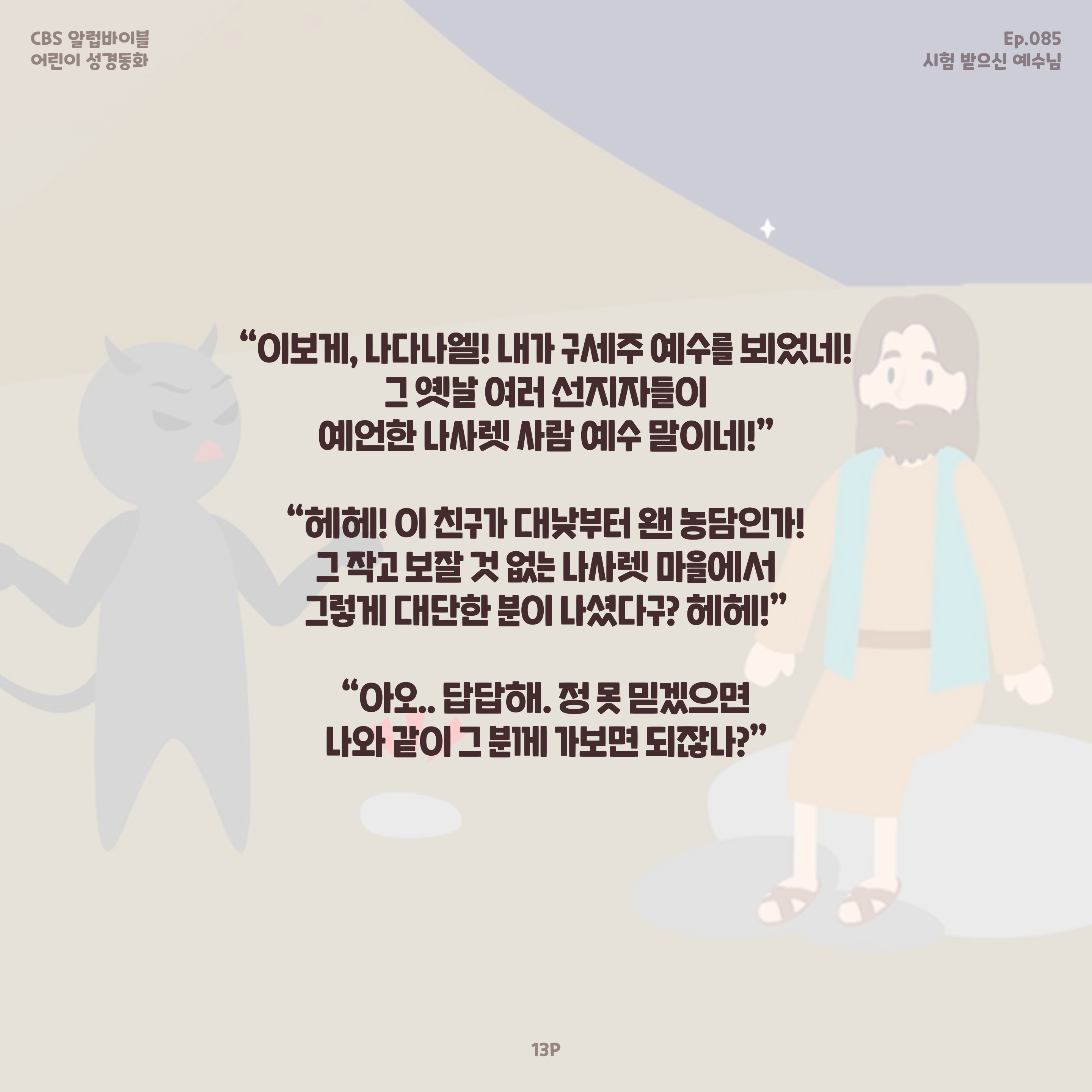
“아, 안녕하세요...?”

**“그래, 반갑구나 시몬아.
내 이제 너를 ‘베드로’라고 부를 것이다.”**

**‘베드로’는 ‘반석,’ 그러니까
‘넓고 평평한 큰 돌’을 뜻하는 이름이었어요.
집을 세울 때 기초가 되는 단단한 돌이었죠.**

예수님께서서는 훗날 베드로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세우는 단단한 기초같은 사람이 될 거란 걸 아셨어요.
그래서 이런 이름을 지어주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빌립’이란 사람도 만나셨어요.
빌립에겐 ‘나다나엘’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나다나엘은 늘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이보게, 나dana엘! 내가 구세주 예수를 보았네!
그 옛날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한 나사렛 사람 예수 말이네!”**

**“헤헤! 이 친구가 대낮부터 왜 농담인가!
그 작고 보잘 것 없는 나사렛 마을에서
그렇게 대단한 분이 나셨다구? 헤헤!”**

**“아오.. 답답해. 정 못 믿겠으면
나와 같이 그 분께 가보면 되잖나?”**

빌립의 손에 이끌려 나dana엘이 예수님을 찾아오자
놀랍게도 예수님께서서는
단번에 나dana엘을 알아보셨어요!

“너는 진정한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마음 속에 거짓된 것이 하나도 없으니 말이다.”

“아, 아니... 대체 저를 어찌 아십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걸 보았단다.”

나dana엘은 깜짝 놀랐어요.
자신의 생각까지 훤히 꿰뚫어보시는 분이라면
정말 구세주 예수가 틀림없었으니까요!
나dana엘은 감격해서 이렇게 고백할 수 밖에 없었죠.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빌립과 나dana엘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었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서는 열 두 명의 특별한 제자들을
뽑으셔서 널리 믿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시는데
이들도 예수님의 열 두 제자 안에 들어가게 된답니다!